



주 제:	“회개하지 않으면...”	“사순 제 3주일” (다해)	2007년 3월 11일
복음 묵상:	루카 13,1-9	탈출 3,1-8 7드. 13-15	탈출 3,1-8 7드. 13-15

이제 우리는 남의 탓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 중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이웃 형제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지기에 회개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부터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웃 형제들을 다치게 하는 원인을 제공 할 것이며 결국 그렇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는 절제와 기도를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실천해 나가면서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 함형식 신부님 강론에서)

### 성가대 소식

1. 이제 부활절이 4 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2. **축입단:**

- 윤안도 (요셉): 테너 (408-316-7300)
  - 강보영 (루시아): 소프라노 (408-398-3345)
  - 우영조 (요한): 베이스 (408-480-5459)
  - 나종빈 (프란치스코): 베이스 (408-655-7078)
  - 조병화 (솔로몬): 베이스 (408-530-0299)
- 오랜 경험을 가지신 단원들을 보내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3. 다음주 3월 18일(일) 오후 연습후 성가대 임원 및 각 파트장님들과 기악담당자들과 30주년 기념 음악회에 관하여 회합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좋은 안들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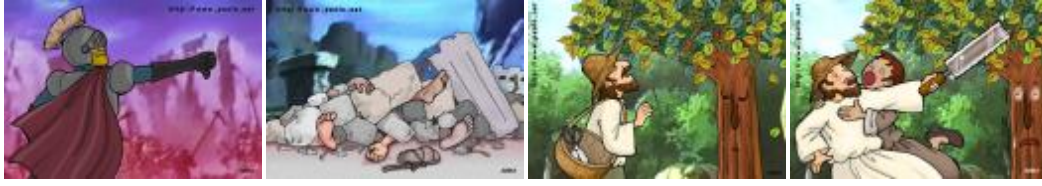
4. **사순 특강 및 십자가의 길**

- 사순기간 중 매주 금요일 저녁 7:30부터 십자가의 길과 미사 중 특강이 있겠습니다.
  - 사순 제3주간: 바오로 딸 수녀회
  - 사순 제4주간: 바오로 딸 수녀회
  - 사순 제5주간: 황정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
-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기도 요청**

- 서병문 바오로 형제님 3월 17일 한국에서 화족을 밝힐 예정으로 출국하셨습니다. 3월 25일 신혼여행 후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좋은 새 가정의 출발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유비오 지휘자님과 유 요안나 자매님 Florida로 1주일 예정으로 여행떠나셨습니다.
- 전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 3/5 2 주간의 여정으로 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 안영희 세실리아 자매님이 5월말에 돌아올 예정으로 한국에 가셨습니다. 여행중이신 모든 단원 가족님들 주님 함께 하시어 즐거운 여행 되시길 기도합니다.
- 이은순 아네스 자매님의 친정어머님께서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루가 13,1-9]



바로 그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희생물을 드리던 갈릴래아 사람들을 학살하여 그 흘린 피가 제물에 물들었다는 이야기를 일러 드렸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갈릴래아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래아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변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 탑이 무너질 때 깔려 죽은 열 여덟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들인 줄 아느냐?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렸나 하고 가 보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네가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따 볼까하고 벌써 삼 년째나 여기 왔으나 열매가 달린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으니 아예 잘라 버려라. 쓸데 없이 땅만 썩일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하였다. 그러자 포도원지기는 '주인님, 이 나무를 금년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제가 그 돌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 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 버리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1분 명상

“人 生”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고, 출세 하기 싫은 사람 누군고,  
시기 질투 없는 사람 누군고, 용어물 없는 사람 어디 있겠소,

가난 하다 서러워 말고, 장애를 가졌다 기죽지 말고  
못 배웠다 주눅 들지 마소, 세상살이 다 거기서 거기외다,

가진 것 많다 유세 떨지 말고, 건강하다 큰소리 치지 말고  
명에 얻었다 목에 힘주지 마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터이다,

버릴 것은 버려야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리오,  
즐게 있으면 줘야지, 가지고 있으면 뭐하노, 내 것도 아닌데,,

삶도 내 것이라고 하지마소,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일 뿐인데 묶어 둔다고 그냥 있겠오,  
흐르는 세월 붙잡는다고 아니가겠소,

-서산대사께서 입적하기 직전 읊은 해탈詩중에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필리 4,1)**  
**"Stand firm in the Lord."**